

2) 교관의 파견실태

향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군현별로 수령이 교관을 임명하였다. 무인정권기와 원 간섭기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공양왕대에 이르러 각 도의 목·부·군에 유학교수관을 파견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고려 때의 수령, 역승과 함께 유학교수관도 관직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결국 조선시대의 교관제도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고려 말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출발하였다.

조선 전기까지의 교관명칭과 파견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말에 파견한 유학교수관 이외에 1395년(태조 4)에는 6품 이상 70세 이하의 한량관을 향교 훈도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교수관은 유학교수관과 훈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후 1411년(태종 11)에 6품 이상은 교수, 7품 이하는 훈도로 불러 품계로 교관의 이름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왕조 초창기에 교관으로 파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자 그 자격을 확대하였고, 자격에 따라 교관의 명칭도 세분하였다. 그리하여 1416년에 문관 출신자로 6품 이상을 교수, 참외(參外)를 훈도, 생원·진사로 교관이 된 자를 교도라 불렀다.

요컨대 부족한 교관 확보를 위해 서울은 예조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4서 2경을 시험 봐 생원·진사를 교도로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생원·진사를 교도로 임명해도 그 수는 많지 않았고, 또한 이들은 교도보다는 문과 합격을 위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기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실정으로 1419년(세종 1)에 수령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학장으로 임명하여 향교의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녹봉도 없이 호역을 면제받는 정도의 혜택을 받는 학장들이 교육에 열의를 가질 리 없었다. 또한 관료가 아닌 이들을 학생들이 경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국가의 우수교관 확보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는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1471년(성종 2)에는 문과 출신으로 교수나 훈도를 제수하던 것을 생원·진사로 훈도를 제수하고, 생원·진사로 제수하던 교도는 유학(幼學)으로 제수하여 교관의 자격을 한 단계 완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교도와 학장의 차이는 실제 없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관의 자격 완화는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관직 부임을 기피하였다. 더욱이 문신관료 가운데 좌천자를 교관에 제수하자, 교관을 한직이요 좌천직으로 여겨 더욱 회피하였다.

군현제도가 정비되고 각 고을마다 향교가 하나씩 설치된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교관의 명칭을 교수와 훈도 둘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형국대전』에 교수는 종6품, 훈도는 종9품으로 정하고 주·부에는 교수를 72명, 군·현에는 훈도를 257명 모두 329명을 향교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도호부 이상에는 교수를, 군현에는 훈도를 둔다고 하였지만 군현에는 대체로 유학출신의 학장을 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임기는 관인 교관의 경우 90일이고, 비관인인 학장은 종신토록 향교에서 교생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관들에 대한 대우는 전반적으로 빈약하였다. 『형국대전』에 종6품인 교수관과 종9품인 훈도에게 식미(朔米)·포·저화 등과, 수발에 필요한 관노 1명, 대마 1필을 지급하였다. 교육성과가 큰 교관에게는 품계를 올려주고 일반행정직 서용을 허락하는 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관에 대한 대우는 다른 관직보다 빈약하였다.

학장에게는 원칙적으로 봉록이 없었다. 이들은 생계와 급식을 자기집에서 해결하였다. 교생교육의 반대급부로 군역과 호역을 면제받는 정도였다. 간혹 관인 교관에 준하여 보수를 지

급받거나 또는 향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드문 일이었다. 교관이 고을에서 존경받는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봉록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향교 교육을 침체케 한 원인이 되었다.

연산군대에는 향교 교육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중종대에 교육진흥을 위하여 여러 흥학책을 강구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교관의 부족은 여전히 문자를 해득할 정도만 되면 학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할 정도였으니 향교 교육의 난맥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조대의 향교 교육도 별 변화가 없었으며 임진왜란·정유재란으로 향교가 파괴되고 소실되어 향교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왜란 이후 향교를 중건·복구하였지만 교관의 파견은 유명무실해졌고, 이제 향교 교육은 거의 마비상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향교집강안

조선시대 교관으로 제독관과 교양관도 있었다. 제독관은 제독교수라고도 하는데, 처음 문헌에 보이는 것은 1586년(선조 19)이다. 팔도에 제독관을 각각 1명씩 파견하였는데, 이는 군현을 순행하면서 향교 교육을 독려케 함이었다. 교양관은 향교교양관이라고도 부른다. 1643년(인조 21)에 처음 보이는데 이는 제독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교관의 파견이 유명무실해지고 향교의 교육이 피폐하자 계수관 향교에 제독관(교양관)을 파견하여 교생을 교육하고 장학활동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며, 이후에 치폐를 거듭하였다.

향교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제독관 파견이 논의된 것을 보면, 향교를 유지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교 교육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나마 영조대에 편찬되는 **《축대전(續大典)》**에 따르면 교관 파견의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조선 후기에는 교관 파견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관이 더 이상 교육과 운영을 책임질 수 없게 되자 고을 양반들이 교임(校任)이라 하여 도유사·장의·색장 등의 직임을 두고 자치적으로 향교를 운영하였다. 순천향교에 전해지는 **《향교집강안(鄕校執綱案)》**이 바로 순천향교의 역대 교임명단을 기록해놓은 것이다.

순천은 도호부로, 순천향교에 파견된 교관은 교수였다. 1407년에 건립된 이후 중앙에서 교수가 계속 파견되어 향교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향교와 마찬가지로 교관의 부족, 교육 부진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1618년에 순천부사였던 이수광(李睟光)에 의하여 편찬된 읍지인 **《충평지》**에 “교수는 1원으로 정유란 뒤부터는 두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임진왜란 이후, 늦어도 17세기 이후에는 순천에 교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제독관, 교양관이 파견되어 향교를 순행하면서 교육을 독려하였으나 이도 곧 유명무실해졌다.